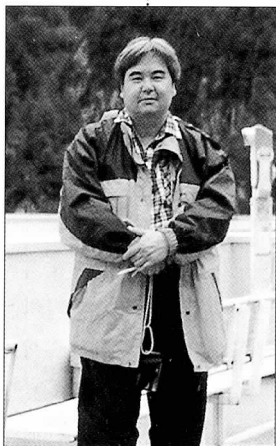


청 계 산

청계산 수년 전부터 수도권의 등산지로 부상



월간<사람다운사람>편집국장
李 治 成

대부분의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어느 한 쪽이 먼저 발달하고 나중에 대안이 발달하기 마련, 서울은 조선조에 들어와 강북이 터를 잡기 시작했고 강남이 번성한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다. 헝가리 수도의 경우 다뉴브강을 경계로 먼저 부다, 후에 페스트가 생겨 부다 페스트가 되었다.

서울 시민의 경우 북한산과 도봉산이 좋은 휴식장소여서 서민들의 발걸음이 잦고 강남에서는 관악산이 수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제한된 면적에 운집 인구가 많아 관악산 근처에 있고 비슷한 높이의 청계산을 찾는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다.

청계산은 서울 서초구, 성남시 수정구, 과천시 문원동, 의왕시에 걸쳐 있는 제법 큰 산이지만 강남구에 가까이 있어 “그까짓 산”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역사에 얽힌

이야기가 제법 많은 산이다.

야외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좋은 관광지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면 “집 근처에 있는 곳을 만한 곳을 가시오”하는 다소 성의없는 듯한 대답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틀린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휴일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우리 민족의 질서외식이 유난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다.



♣ 청계산 동종. 숙종 때 수조한 종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집 부근의 사적부터 찾자

집 근처의 사적을 찾으려면 약간의 지식은 머리에 넣고 떠나야 한다. 요즘에는 학생들의 ‘내고장 바로 알기’나 ‘역사탐방’ 같은 것이 있다. 자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의논해 올 경우 평소 자기 이웃을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쉽게 대처할 것이다.

청계산은 코스가 많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코스는 기도원코스이다. 양재역에서 하차해 78-1번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청계산을 찾는 사람들이 내린다. 처음 이 산을 찾는 이라면 이 등산 인파에 합류하여 그냥 따라 올라간다.

등산로에는 돌이 좀 있지만 등산로는 그런대로 무난한 편이다.

등산 기점을 출발한지 1시간이 조금 넘으면 매봉이라는 표지석이 있는 정상에 서게 된다. 정상에서 남쪽으로 트인 소로를 따라가면 혈읍재(血泣山寺)에 닿는다.

이 고개는 조선왕조가 개국할 무렵 이성계에게 협조하지 않은 조운(趙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넘었다는 고개이다. 그는 쓰러진 고려를 생각할



♣ 전주교 성지 부근에서 바라본 이수봉 능선 청계산 남릉이라고도 한다.

때면 청계산 정상에 올라 북쪽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래서 망경대(望京臺)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혈읍재에서 로프가 설치된 오른쪽 길을 따라 20분 가량 내려가면 바위 동굴이 보인다. 이 동굴은 마왕굴, 박쥐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조윤은 한때 이 동굴 주위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이 동굴 앞에는 단비샘이 있다. 이 동굴 위가 바로 청계산의 정상부로 이 지역에서 오랜 산행을 한 사람들이 이 봉우리를 석기암봉이라고 한다. 기도원코스로 청계산을 찾은

이들은 대개 이 지점 부근에서 중식을 한다.

마왕굴을 지나면 공터가 나오고 이어 하산을 하면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길은 이수봉, 오른쪽길은 청계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청계사로 가는 길이다.

청계사로 가는 길은 좀 험하다. 초행자들은 필히 다른 등산객에게 물어야 제길을 찾을 수 있다.

청계사는 신라 때 개창되었으며 대찰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고려 충렬왕 때 시중 조인규가 막대한 사재를 시주하여 그의 원찰로 삼은 뒤부터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연산군이 도성의 모든 사찰에 폐쇄령을 내렸을 때 이 절은 봉은사를 대신하여 정통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도장이 되기도 했다.

주요 건물로는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삼성각, 종각, 명부전 등이 있다.

종각에는 조선 숙종 때 만든 동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6호)이 걸려 있다.

또한 불교 경전을 새긴 목판(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5호)이 소장되어 있고 절 입구에는 사적비 2기가 있어 이 사찰의 지난 날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야기는 다시 공터를 지난 갈림길로 간다. 절구경을 하려면 청계사를 거쳐 인덕원이나 과천으로 가지

만 등산이 목적이라면 최근 청계산을 전문으로 다니는 산꾼들이 이용하는 국사봉 금토동코스를 타면 청계산의 새맛을 느낄 수 있다.

갈림길에서 이수봉쪽으로 가다보면 또 갈림길이 나온다.

이수봉(貳壽峰)은 조선의 정여창과 관련이 있는 산이다. 그는 사화 때 이 산으로 피해 두 번째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국사봉(國思峰)은 조운이 나라 걱정을 해서 생긴 지명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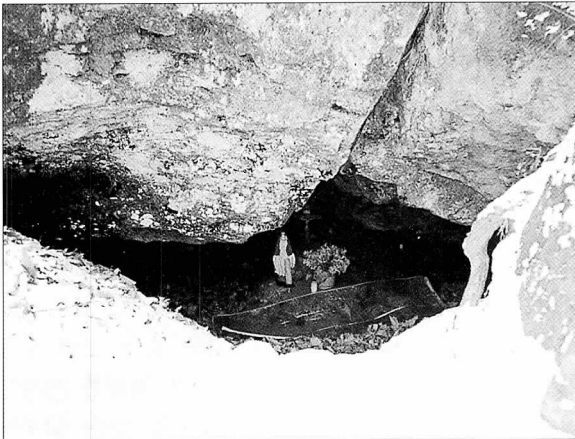
이수봉과 국사봉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국사봉으로 가는 길로 들면 노약자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부드러운 길이다. 봄이면 이 코스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꼭들어차 있어 먼길을 가지 않고도 꽃산행을 즐길 수

있다. 대략 1시간이면 국사봉에 닿는다.

국사봉 정상에는 양쪽으로 길이 뻗어 있다.

이수봉쪽으로 난 길은 성남시 금토동으로 가는 길이며 청계사쪽인 오른쪽길은 인덕원으로 하산하는 길이다.

인덕원으로 가는 길은 잘 알려져 있으며



♣ 프랑스 신부가 은거했던 바위동굴 입구



☞ 정계사. 신라 때 개창한 고찰이다.

로 금토동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소개한다. 이 코스로 진입하여 30분 정도되면 다시 갈림길이 나온다. 오른 쪽길은 정신문화원으로 내려가는 길 이므로 금토동으로 내려가는 왼쪽길로 들어서야 한다.

정상에서 금토동코스로 내려온지 1시간 가량되면 천주교 성지가 나온다. 능선 아래에 있는 바위동굴이 바로 성지이다.

프랑스신부 서루도비꼬는 1865년 서해를 거쳐 국내에 잠입, 이 동굴에 1년간 은신하면서 포교를 꾀하다가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처형되어 현재의 용산우체국 뒤에 가매장되었다가 명동 대성당에 안장되었으므로 천주교 신자면 한 번 찾을 만한 역사의 고장이다.

다시 김씨 가족묘를 지나면 금토동이다. 이 곳에는 78-1번 버스 종점인 원지동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다. ●